

트럼프, 폴리실리콘 관세·이민 행정명령 서명 - 반도체 자급과 국방예산 변수 부각

2026.08.07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트럼프 대통령은 6 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 조 관세 부과, 출생시민권 제한, 출산관광 전면금지 등 세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 이후에는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인플레이션, 이란 관련 긴장, 국방예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반도체 웨이퍼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비중을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신규 반도체 공장 확대와 연계해 반도체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민정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적국 국적자와 테러조직원 자녀를 출생시민권 대상에서 배제하는 행정명령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률자문은 해당 조치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적 논란의 소지가 커 향후 연방법원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배럴당 75 달러 수준으로 내려온 유가와 회복세를 보이는 제조업 생산성을 관세·에너지 정책의 성과로 제시했고, 탄약 부족설은 부인하면서도 210 억 달러 규모의 국방 보충예산을 요청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폴리실리콘 관세가 가장 구체적이고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에는 긍정적 요인이고,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출업체는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방 보충예산 요청과 신규 국방 공장 건설 언급은 방산업체 수주 확대 기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아직 의회 승인 전 단계이므로 실제 예산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 관련 긴장이 상존한다고 밝혀 변동성 리스크는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 여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종전 협상이나 유럽 재건 관련 투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출생시민권·출산관광 관련 행정명령은 실제 시행 전 법적 다툼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속 소송 절차와 법원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출처 최근 자료 비교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07 (이번)	트럼프, 폴리실리콘 관세·출생시민권·출산관광 금지 EO 서명 후 이란·우크라이나·국방예산 질의응답 진행
2026-07-09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회견에서 NATO 성과, 군사 교전 현황, 불법 이민과 주택 비용, 캘리포니아 선거 등 현안을 직접 언급



투자 관점 — 직접 영향 종목·자산

종목·자산	영향	근거
Intel (INTC)	수혜	폴리실리콘 국산화 정책과 함께 신규 반도체 공장 확대가 직접 언급됨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Hemlock, REC Silicon 등)	수혜	232 조 관세로 국내 생산이 보호되고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중국 폴리실리콘 수출업체	불리	관세로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며 덤핑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 방산기업 (Lockheed Martin, RTX, General D)	수혜	탄약보충 210 억 달러 요청과 신규 국방 공장 건설 언급으로 수주 확대 기대
WTI 원유	불리	배럴당 \$75 로 하락했다고 언급되며 공급 안정 내지 수요 둔화 시사
우크라이나 재건·유럽 방산 테마	혼재	종전 협상 진행 시 재건 수요 부상 가능하나 패트리엇·미사일 지원 여부는 미확정
미국 반도체 웨이퍼·장비 공급망	수혜	원료(폴리실리콘) 국산화로 AI 칩 밸류체인 전반의 자립도 강화

관련 자료 · 상세 분석 리포트

발언 원문과 시점별 타임라인, 핵심 수치 표는 상세 분석 리포트에 있습니다.

[상세 분석 리포트 보기](#)



스캔하면 상세 분석 리포트로 연결됩니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